

#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5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8월 1일

##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유인선\_前 서울대 교수

- 북속기, 중국의 지배에 대한 항쟁
- 베트남 왕조의 독립 의지
- 띠엔 레 왕조, 리 왕조, 쩐 왕조와 중국 왕조들
- 레 왕조의 흥망성쇠와 명, 청
- 응우옌 왕조와 청의 방교 관계

##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유인선\_前 서울대 교수

베트남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첫 번째 북속기(北屬期)의 ‘지배와 항쟁’, 두 번째 독립 왕조 시기의 ‘대등 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베트남 역사가 응오 씨 리엔(吳士連)은 1497년 편찬한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에서 베트남 역사가 기원전 2879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는 베트남 역사가 중국 역사만큼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의 상한선은 기원전 7세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그 무렵 청동북(銅鼓)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입증된다. 당시 국가는 반 랑(文郎)이며, 왕은 흥 브엉(雄王)으로 불렸다. 반 랑의 뒤를 이어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어우 락(甌貉)이라는 나라가 성립했으나, 어 우락은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기원전 179년에 남 비엣(南越)에 흡수되었다.

남 비엣은 광동 지방 관리였던 쯤에우 다(趙佗)가 진시황 사후 중국 대륙이 혼란한 틈을 타 독립을 선언하고 기원전 207년 세운 나라이다. 그는 황제를 칭하고 한 고조 유방과 대등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기에 응오 씨 리엔에 앞서 1272년 『대월사기』를 쓴 레 반 흐우(黎文休)는 진정한 의미에서 베트남의 역사는 남 비엣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 북속기, 중국의 지배에 대한 항쟁

기원전 111년 한 무제는 남 비엣을 멸망시키고 베트남에 교지(交趾), 구진(九眞), 일남(日南)의 세 군(郡)을 두었다. 이후 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는데, 베트남 역사에서는 이를 ‘북속기(北屬期)’라고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중국의 지배에 대한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속기에 있었던 베트남인의 항쟁은 그 성격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500년 전후까지는 항쟁에 적극적 독립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



쯩 자매의 반란

고, 그 이후부터 비로소 독립을 위해 항쟁을 하였다.

애초에 한 무제가 남 비엿을 정벌한 목적은 중국 중원에서 산출되지 않는 남해물산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 비엿을 직접 지배하에 두지 않고 간접 통치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런데 기원전후로 파견되는 관리 중에 직접 지배를 시도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현지 지배층이 반기를 들었다. 그 첫 번째가 쯩 작(徵側)과 동생 쯩 니(徵貳), 곧 쯩 자매가 기원후 40년에 일으킨 반란이었다.

쯩 자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한 후한은 이듬해 대군을 보내 교지 토벌 명령을 내렸다. 후한 군대에 밀린 쯩 자매는 저항을 거듭하다 43년 정월 마침내 원정군에 생포되어 처형당했다. 베트남 사서(史書)는 두 자매가 처형된 것이 아니라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자기네 영웅의 굴욕적 모습을 부정하려는 의도였다.

이후 100여 년간은 별다른 사건이 없었으나, 그 이후 중국 관리들의 착취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나 후한은 내부의 환란 때문에 이들 반란에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못했다. 당시 후한은 환관이 득세해 권력을 남용하고, 농민이 대규모로 봉기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등 지극히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군대를 원정 보내는 대신 그저 한두 사람의 유능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의 역량에 의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행사하는 데 그쳤다. 이를 틈 타 교지는 유능한 태수 사섭(士燮)의 지도하에 잠시나마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208년에는 강남에서 오(吳) 손권(孫權)의 세력이 강해지자 손권과 손을 잡았다.

오는 북쪽의 위협 때문에 교지에 간섭하지 않다가, 사섭이 죽은 후 정복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71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난을 진압하고 새로운 교지자사를 임명했고, 280년 진(晉)이 오를 병합하자 자사는 진에 항복했다. 진은 그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동진(東晉) 때에는 반세기에 걸쳐 현지인 도(杜)씨 삼대가 교지 문제에 권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남으로부터 침입하는 임읍(林邑, 참파)에 대한 정벌을 감행하여 베트남을 안정시켰다. 도씨 3대의 마지막 인물인 도 호양 반(杜弘文)은 송의 중앙 관직에 임명되자 병든 몸을 이끌고 가다가 객사했으나, 도씨는 토착의 유력자로 교지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은 중국 왕조의 충실한 신하였다.



기원후 200년경 중국 지배하의 베트남

## 베트남 왕조의 독립 의지

502년 중국 남조에 양(梁)이 들어서면서 베트남은 독립 의지를 내보이기 시작했다. 541년 리 비(李贲)가 쯡 자매 이래 최대 규모의 난을 일으켰다. 544년 리 비는 자신을 남 비엣의 황제[南越帝], 왕조 이름은 반 쉰(萬春)이라 칭하고는 백관을 임명하여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는 베트남 사회가 복속을 거부하고 정식으로 세운 최초의 국가였다.

545년 양은 베트남으로 대군을 보내 리 비를 공격했다. 리 비는 양 군대에 패하여 산간 지방으로 피신했다가 산지 주민에게 죽임당했다. 리 비가 죽자 그의 형 리 티엔 바오(李天寶), 친척 리 펏 뜨(李佛子)가 차례로 뒤를 이어 저항을 계속하였다.

역사가 응오 씨 리엔은 리 비와 리 펏 뜨를 각각 독립된 왕조의 창건자로 인정하여, 전자를 띠엔 리(前李) 왕조의 띠엔 리 남 데(前李南帝), 후자를 허우 리(後李) 왕조의 허우 리 남 데(後李南帝)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 지배를 부정하는 셈이다. 산지 주민에게 살해된 리 비의 머리는 건강(健康, 지금의 난징)으로 보내졌는데, 응오 씨 리엔은 그가 병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589년 남조의 진(陳)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한 수(隋)는 베트남을 평정하고 푹 빈 성(宋平城)에 교주총관부(交州總管府)를 설치했다. 수의 뒤를 이은 당(唐)은 처음에는 수의 제도를 답습하여 교주총관부를 두었다가 679년에 이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중국인은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도호부 체제하에서도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722년 호안 쩌우에서 일어난 마이 툽 로안(梅叔鸞)의 반란, 안녹산(755-763)의 난 후에 일어난 풍 흥(馮興)의 난 등이 있다. 이후 베트남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9세기 후반 남조(南詔)의 침입이었다. 당 조정은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고병을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하여 남조 군대의 퇴치를 맡겼고, 2년 동안 그는 남조 세력을 안남에서 일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세력을 키운 것은 토착 가문인 쿡씨 3대로, 당이 베트남에 둔 절도사 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시 광동에 있던 남한(南漢)이 930년 베트남에 원정군을 보냈고, 쿡씨의 마지막 인물을 광저우로 압송했다. 다만 남한의 베트남 병합은 일 년도 가지 못했다. 남한은 북부의 홍 강 델타에서는 별 저항을 받지 않았지만, 남부의 아이 쩌우(愛州)와 호안 쩌우(驩州)까지는 세력을 미치지 못했다. 아이 쩌우 출신으로 쿡씨의 부하 장수였던 즈엉 딘 응에(楊廷藝)는 931년 다이라 성(大羅城, 지금의 하노이)을 함락하고 남한 세력을 물리쳤다.

하지만 즈엉 딘 응에의 통치도 6년을 채 못 채웠다. 937년 끼에우 쩡 띠엔(矯公羨)라는 인물이 나타나 그를 죽이고 대신 절도사가 된 후 남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권력 다툼이라기보다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홍 강 델타 중심 세력과 그 영향을 덜 받은 남부 세력의 대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즈엉 딘 응에의 사위이자 끼에우 쩡 띠엔과는 다른 지방 출신이었던 응오 꾸옌(吳權)은 북진하여 끼에우 쩡 띠엔을 죽이고, 남한의 수군을 바익 당 강(白藤江)에서 대파했다.

응오 꾸옌이 바익 당 강에서 거둔 승리는 베트남인이 중국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 독립으로 가는 길에 이룩한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였다. 939년 봄 그는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이전 베트남 지도자들



응오 꾸옌의 바익 당 강 전투(938)

이 가졌던 절도사관 칭호를 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응오 씨 리엔은 이때부터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레 반 흐우는 응오 꾸옌이 황제라 칭하지 않고 단지 왕이라고만 했을 뿐 아니라 연호도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지 못했으므로 베트남의 독립은 아직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오늘날 베트남 역사학계는 결출한 재능의 소유자였던 응오 꾸옌이 민족 독립을 쟁취했다고 하여, 레 반 흐우보다는 응오 씨 리엔에 동조하는 경향이다.

944년 응오 꾸옌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처남이자 즈엉 딘 응에의 아들인 즈엉 탐 카(楊三哥)가 왕을 자칭했으나, 몇 년 후 응오 꾸옌의 아들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나 델타 지방에서는 응오 씨와 끼에우씨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었다. 응오씨 왕은 직접 원정에 나섰다 963년 북병이 쏜 화살에 맞아 사망했고, 이후 군웅들이 각지에 할거하는 이른바 ‘십이사군(十二使君)의 시대’가 계속되었다가 딘 보 린(丁部領)이 이를 평정했다.

딘 보 린은 965년 십이사군을 평정한 후 처음에는 반 탕 브영(萬勝王)이라 했으나, 968년 황제로 칭호를 바꾸고 나라 이름을 다이 꼬 비엣(大瞿越)이라 했다. 다이 꼬 비엣이라는 이름은 1054년 리 왕조(李朝)의 타인 푹(聖宗)이 ‘꼬’ 자를 빼고 국호를 다이 비엣(大越)이라고 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다이 비엣은 이후 18세기 말까지 역대 왕조의 국호였다. 따라서 베트남 왕조들은 건국자의 성을 따라 리씨가 세웠으면 리조(李朝), 쩌씨가 세웠으면 쩌조(陳朝) 등으로 부른다.

딘 보 린은 2년 후에 중국식 연호를 버리고 자신의 연호를 제정하여 타이 빈(太平)이라 했다. 딘 보 린의 황제 칭호라든가 연호 제정은 중국 황제와 대등하다는 표시로, 이후 베트남 왕조 군주들의 전례가 되었다. 다만 중국에 사절을 보낼 때는 ‘안남국왕’이라고 했다.

## 띠엔 레 왕조, 리 왕조, 쩌 왕조와 중국 왕조들

960년 건국한 송(宋)은 일단 딘씨의 권위를 쉽사리 인정했으나, 베트남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979년 딘 보 린 부자가 살해되고, 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제위에 오르자, 송은 곧 베트남을 침공했다. 송의 침입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딘 조정에서는 일부 신하가 어린 황제 대신 타인 호아(Thanh Hóa) 출신의 대장군 레 호안(黎桓)을 황제로 추대했다. 980년 내분을 수습하고 제위에 올라 띠엔 레 왕조(前黎朝)를 성립한 레 호안은 직접 송에 맞섰다. 송의 군대는 수륙 양군의 전략이 차질을 빚은 데다, 마침 무더위로 질병이 발생하여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레 호안 사후 여러 아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셋째 아들이 간신히 제위에 올랐으나, 며칠

만에 동생에게 살해당했다. 동생의 통치는 매우 잔학하여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불교 승려들의 반발을 샀다. 그가 죽자 승려와 관리들은 친위대장인 리 쑹 우연(李公蘊)을 제위에 오르게 하니, 바로 리 왕조(李朝)의 건국자 타이 또(太祖)이다. 그는 1010년 수도를 지금의 하노이(탕 룡, 昇龍)로 옮겼다. 이후 하노이는 마지막 전통 왕조인 응우옌 왕조(阮朝)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베트남의 수도가 되었다.

리 왕조는 불교를 숭상했으나 1070년에는 문묘(文廟)를 세우고, 1075년에는 과거제도도 도입했다. 이 즈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송의 침입이었다. 1067년 송에서 신종(神宗)이 즉위하고 왕안석(王安石)을 중용하면서 리 왕조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1076년에는 이윽고 베트남을 공격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장수 리 트영 끼엣(李常傑)이 송을 격퇴하였다. 이때 리 트영 끼엣은 “남국 산하에는 남국의 황제가 있다.”라는 노래를 지어 군사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남국’은 중국의 남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을 ‘북국(北國)’이라 하여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송은 베트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다가 남송 때인 1174년 베트남을 ‘안남국’이라 하여 국가로 인정한 점이다. 당시 남송이 금의 위협을 받고 있어 베트남을 우호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중화질서가 중국의 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리 왕조의 뒤를 이어 쩐 왕조(陳朝)가 성립했다. 쩐 왕조의 정책 중 중요한 것은 황실 근친혼, 장자 상속 그리고 모든 권력이 황실 귀족들에게 있다는 점이다. 불교는 여전히 황실의 보호를 받았으며, 일부 황제는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고는 출가하기도 했다.

쩐 왕조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은 몽골의 세 차례 침입(1257, 1284-1285, 1287)이었다. 이에 대항한 장수는 쩐 흥 다오(陳興道)로, 그의 지휘하에 몽골의 침입을 모두 물리쳤다. 이로써 그는 베트남인이 가장



몽골-다이 비엣 전쟁(1258)

승상하는 영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또한 레 반 호우가 1272년 『대월사기』를 쓴 것은 몽골의 침입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민족정신을 앙양하기 위해서였다.

1400년 쯤 왕조는 권신 호 꾸이 리(胡季犛)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호 꾸이 리의 두 고모가 민 똥(明宗)의 후궁이 되어 낳은 아들이 모두 황제가 된 덕택에 그는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명(明)의 영락제(永樂帝)는 처음에는 호씨를 인정했다. 그러나 1404년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영락제에게 베트남을 침략할 구실을 주었다. 우선 불거진 문제는 양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참파가 명에 사신을 보내 안남이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침범하여 영락제에게 보낼 예물까지 약탈했다고 알렸다. 호씨와 명의 관계를 악화시킨 또 다른 사건은 쩐씨의 일족이라는 이가 호씨 부자의 찬탈을 호소한 것이었다.

명의 원정군은 1406년 겨울 베트남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한 지 두 달 만에 당시 동쪽의 수도(東都)인 탕 룡과 호씨의 수도인 띠이 도(西都, 타인 호아 소재)를 어렵지 않게 점령했다. 명군은 도망하는 호 부자를 남쪽으로 계속 추격했고, 1407년 여름 이들을 붙잡아 금릉(金陵, 현 난징)으로 압송했다. 이리하여 호 꾸이 리 정권은 7년 만에 무너지고, 베트남은 독립한 지 400여 년 만에 또다시 2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명은 쩐씨의 후손이 끊겼다고 발표하고, 그때까지 알려진 이름인 안남을 다시 교지(交趾)로 바꾸었다. 또한 명의 지방 행정제도를 도입해 제국의 일부로 통치하고, 중국인과 베트남인으로 관직을 채우는 동시에 동화정책을 주목표로 삼았다.

곧 각지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1407년 가을 쩐 황실의 후손이 잔 딘 데(簡定帝)를 칭하며 저항했다. 이를 두고 응오 씨 리엔은 잔 딘 데와 그의 뒤를 이은 쩐 꾸이 코앙(陳季擴)의 시기(1407-1413)를 허우 쩐(後陳)이라 하여 하나의 독립된 왕조로 보고 명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당시 쩐 꾸이 코앙 등이 포로가 되어 명으로 보내져 처형되었는데, 응오 씨 리엔은 쩐 꾸이 코앙이 압송 도중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했다.

## 레 왕조의 흥망성쇠와 명, 청

그 후에도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1418년 타인 호아 지방에서 거병한 레 리(黎利)에 이르러 저항의 양상은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의 끈질긴 항쟁 끝에 마침내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베트남의 독립을 되찾았다(黎太祖紀, 1418-1428). 이 때문에 응오 씨 리엔은 1414년부터 1417년까지만을 명의 지배기, 즉 ‘명속기(明屬期)’라고 보았다. 요컨대 명속기를 최소한으로 하여 중국의 지배보다 베트남의 저항을 중시하고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 비의 경우처럼 중국에 대한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예이다.

레 리이는 1427년 명군을 물리친 다음 그의 오른팔 응우옌 짜이(阮鷹)에게 「평오대고(平吳大誥)」라는 글을 짓게 했는데, 이는 오늘날 베트남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대월국은 진실로 문명화된 국가이다. 산천의 경계가 다르고 남북의 풍속 또한 다르다. 우리는 趙, 丁, 李, 陳이 창업할 때부터 漢, 唐, 宋, 元과 더불어 각각 그 나름의 영토에서 황제를 칭하고 다스려 왔다.

레 왕조(黎朝, 1428~1788)는 이전 왕조들과는 달리 불교 대신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유교가 사회 깊숙이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다. 레 왕조는 전기(1428~1527), 중기(1527~1592), 후기(1592~1788)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만이 정치적으로 평온한 시기였다.

명은 처음 레 리이에게 ‘안남을 대신 다스리는 권한’이란 뜻인 권서안남국사(權署安南國事)의 칭호를 주었다. 그러다가 제2대 타이 푹(太宗)을 안남국왕에 봉했다. 이렇게 중국식 책봉으로 맺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이로부터 1527년 막 당 중(莫登庸)이 레 왕조의 왕위를 빼앗을 때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런데도 레 왕조는 명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응오 씨 리옌이 『대월사기전서』를 쓴 것 역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중국의 침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레 왕조에서는 어리거나 정사(政事)를 등한시하고 사치를 일삼는 군주들이 연이어 제위를 계승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 속에 등장한 것이 델타 출신인 막 당 중이었다. 그는 서서히 병권을 장악한 다음, 마침내 선양의 형식을 빌려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막 당 중이 제위에 오르자 라오스로 도피한 레 왕조의 구신(舊臣) 응우옌 킴(阮淦)을 중심으로 레 왕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명에 사절을 파견해 막 당 중의 찬탈을 알리고 토벌군 파견을 요청했다.

명 조정은 원정 여부를 놓고 몇 번의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막씨가 항복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토벌한다는 화전(和戰)의 두 안에 합의했다. 이는 힘만으로 중국의 권위를 베트남에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택한 방법이었다. 1540년 여름 전권을 위임받은 모백온(毛伯溫)은 병력을 이끌고 광시성의 베트남 국경 부근에 도착했다. 국내에서 레씨 부흥세력과 대적하고 있는 막 당 중은 어쩔 수 없이 명에 투항하겠다는 사절을 보냈고, 명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레씨 부흥세력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1592년 말 동 킴(東京)을 점령했다. 이로써 막씨 정권은 1592년 막을 내리고 레 왕조가 부활했다. 그렇다고 막씨의 세력이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잔여 세력은 이후 명에 인접한 까오 방에 근거를 두고, 명과 그 뒤를 이은 청(淸)의 보호로 1677년까지 지방 정권으로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후 또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응우옌 킴의 사후 부흥세력을 주도했던 쯤(鄭)씨

는 톤킨 델타를 중심으로 하고, 응우옌의 깃의 후손은 오늘날 후에를 기반으로 하여 거의 2세기 동안 대립했다. 레 왕조의 황제는 존재했으나 실권은 없었다.

1771년 베트남 중남부 띠이 썬(西山) 마을에서 응우옌씨 삼 형제가 일으킨 띠이 썬(西山) 운동이 발발했다. 당시 응우옌씨의 힘은 이미 약해진 상태여서 띠이 썬 세력은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띠이 썬 집단은 우선 남부로 도망한 응우옌 폭 아인(阮福映)과 싸워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1786년에는 삼 형제 중 막내인 응우옌 반 후에(阮文惠)가 복진해 썬씨를 무너뜨렸다.

레 왕조의 황제는 응우옌 반 후에의 세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청에 구원을 요청했다. 양광 총독은 건륭제의 허락을 받고 1788년 10월 베트남 국경을 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응우옌 반 후에는 수륙 양군을 이끌고 복진하여, 1789년 1월 초 청군을 기습 공격해 대과했다. 레 왕조 황제는 중국으로 도피했고, 왕조는 종말을 고했다.

## 응우옌 왕조와 청의 방교 관계

청 건륭제(乾隆帝)는 원정군의 패배 직후 베트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했다. 응우옌 반 후에도 만행과의 대립을 고려하여 청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 1790년 건륭제의 팔순 만수축제에 응우옌 반 후에가 친조하기로 약속하면서 청과의 문제가 풀렸다. 그러나 그는 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수축제에는 자신과 용모가 비슷한 조카를 대신 보냈다.

응우옌 폭 아인은 응우옌 삼 형제의 내분을 틈타 세력을 확대하여 1790년 초까지 자 딘(嘉定, 현 호찌민과 그 부근) 지방 전체를 지배하에 두었다. 이 무렵 응우옌 반 후에가 사망하자 그의 공세는 유리해져, 1801년 6월 응우옌 폭 아인은 마침내 조상의 도읍지를 되찾았다. 그는 복진에 앞서 1801년 제위에 오르 고 연호를 자 룡(嘉隆)으로 정했다. 자 룡이란 ‘남부의 자 딘(嘉定) 지방에서 북부의 탕 룡까지’라는 의미로 베트남 전체를 뜻한다. 그리고는 복진하여 한 달 만인 7월 20일 탕 룡에 입성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영토를 포괄하는 베트남 최초의 왕조인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가 창건되었다.

응우옌 폭 아인은 청에 사절을 보내 국호를 남 비엌(南越)으로 하고 자신을 왕에 봉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 조정은 책봉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국명을 남 비엌으로 한다는 데는 반대했다. 대신 두 글자를 바꾸어 비엌 남(Việt Nam, 越南)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응우옌 왕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베트남’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국호 문제가 해결되자 양국의 우호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베트남 역사서는 이로부터 ‘방교의 예(邦交大禮)’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사실상 베트남 역대 왕조는 중국의 사절 파견을 ‘여원(如元)’, ‘여명(如明)’이

라 하여 ‘조공’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한편 건국자인 자 롱 황제(嘉隆帝)나 당대 지식인들 모두 만주족이 세웠다는 이유로 청에 대해 어떠한 존경심도 없었다. 자 롱 황제는 베트남을 ‘중국(中國)’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제2대 민 망 황제(明命帝)는 청과의 합의로 지은 비엣 남이란 이름을 1838년 ‘다이 남(大南)’으로 고치고 이듬해부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청이 대청(大清)이라 한 데 대한 대항 심리의 결과였다. 또 청 건륭제가 지은 시에 대해서도 정경을 그대로 묘사할 뿐 시어(詩語)가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중국에 다녀온 베트남 사신들도 중국의 화이(華夷) 개념에 반발하였다. 18세기 말에 사신으로 간 응오 티 념(吳時任)은 남북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1831년에 파견된 사절 리 반 폭(李文馥)은 복건성(福建省) 공관에 이르러 ‘월남이사공관(粵南夷使公館)’이란 현판을 보고 베트남을 ‘이(夷)’라 한 데 분노했다. 그는 귀국 후 『이변(夷辨)』이라는 글을 통해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인 ‘화(華)’이지 ‘이(夷)’가 아니라고 하였다.

응우옌 왕조 군주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이유로 청의 조공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방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전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는 대등하다는 의식이 있었다.

응우옌 왕조와 청의 ‘방교 관계’는 1803년에 시작되어 8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883년 8월 프랑스와 맺은 아르망(Harmand) 조약으로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베트남은 외교권을 상실했고, 청과의 공식 관계는 종지부를 찍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동안의 이른바 중국과의 조공체제도 종식되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유인선 |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시건대에서 동남아시아 역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사학과와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 『베트남사』, 『새로 쓴 베트남 역사』,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2012), 『베트남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2018),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
|---|--|
| <b>창간호</b>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b>제23호</b>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 <b>제2호</b>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b>제24호</b>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 <b>제3호</b>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b>제25호</b>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 <b>제4호</b>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b>제26호</b>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 <b>제5호</b>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b>제27호</b>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 <b>제6호</b>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b>제28호</b>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 <b>제7호</b>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b>제29호</b>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 <b>제8호</b>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b>제30호</b>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 <b>제9호</b>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b>제31호</b>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 <b>제10호</b>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b>제32호</b>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 <b>제11호</b>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b>제33호</b>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 <b>제12호</b>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b>제34호</b>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 <b>제13호</b>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b>제35호</b>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 <b>제14호</b>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b>제36호</b>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 <b>제15호</b>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b>제37호</b>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 <b>제16호</b>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b>제38호</b>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 <b>제17호</b>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b>제39호</b>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 <b>제18호</b>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b>제40호</b>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 <b>제19호</b>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b>제41호</b>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 <b>제20호</b>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b>제42호</b>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 <b>제21호</b>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b>제43호</b>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 <b>제22호</b>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b>제44호</b>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